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눈앞

전남도, 2일 이해 관계자 설명회... 연내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예정

영광 불갑산이 연내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2일 영광 불갑면사무소에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지 소유자 대상 설명회는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다.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과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등에게 설명, 도립공원 지정·고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월 지역 명산인 불갑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했다.

최근 중앙부처인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불갑면, 묘량면 일원 6.89㎢ 규모다. 지구별로는 공원자원보전지구 3.53㎢, 공원자연환경지구 3.34㎢, 공원문화유산지구 0.02㎢

다. 국·공유림 0.09㎢(1.13%), 사유림 6.80㎢(98.7%)이며, 사찰림(불갑사)이 3.53㎢(5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갑산은 전남 최북서 지역에 위치한 산림이다. 수령 700년 정도 된 천연기념물 참식나무의 북방한계선에 자리했다. 국내 최대 규모 상사화 군락지가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높은 명산이다.

또한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중국 승려 마라난타가 창건했다는 불갑사에는 국가·지방 문화재 수습 접이 있고, 정상의

연일봉에서 바라보는 서해낙조의 아름다운 일몰은 토함산의 일출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시 도내 산악형으로는 4번째가 된다"며 "앞으로 서북지역의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남에는 조계산, 두륜산, 천관산과, 무안, 신안, 벌교 갯벌 등 6고 28만 9천787㎢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7번째가 된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전국 안전배낭 릴레이, 해남 땅끝마을서 출정

전국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9일까지 안전문화 캠페인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국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안전배낭 릴레이' 행사가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1주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안전배낭 릴레이' 행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전구호 깃발을 꽂은 배낭 119개를 메고 해남에서 출발해 부산, 전북, 충남, 강원, 경기 등을 돌며 릴레이 형식으로 배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일 소방의 날에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정식에서는 송지면 의용소방대원 53명, 전남 시군 연 합회장 46명, 소방공무원 11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다짐문 낭독, 안전구호 제창 등을 진행하며 이번 일정의 성공적 시작을 알렸다.

릴레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불조심, 구급대원 폭행 근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비상구 차단 금지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친다.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전달, 화재 피해 주민 위문 방문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변수남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재난안전 지킴이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해 전남 행복시대 연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정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2018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가 2일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목포시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선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판매관에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을 비롯해 친환경 가구, 다육식물, 우리밀 제빵, 수공예품 등이 전시·판매된다.

정책홍보관에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금융지원, 판로 개척 등 상담도 진행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 관람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과 문화예술 공연도 펼쳐진다.

이날 오후 4시 치러지는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김중식 목포시장, 박성철 한전KDN 사장,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등 빛가람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 관계자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전라남도도와 나주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실현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미국 켈컴연구소 한국지사 광주유치 업무협약 체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미국 켈컴연구소 한국지사 광주유치 업무협약식에서 리메쉬 라오 켈컴연구소 소장(왼쪽)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국장, 조석현 켈컴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용섭 광주시장, 리메쉬 라오 켈컴연구소 소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광역시 제공

빛그린산단 체육관 건립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50억원 등 총 100억 투입해 개방형체육관 건립 광주형일자리 관련 첫 국비 확보...사업 탄력 기대

광주형 일자리의 선도모델을 구축 중인 빛그린산단 내에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시는 정부의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빛그린산단 체육관 건립은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로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광주시가 전력을 쏟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첫 국비 확보다.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의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800㎡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유아놀이터, 다목적룸 등이 들어서며 체육과 문화가 연계된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빛그린산단 내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

업을 추진기로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 등 부대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의 4대 조건을 충족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

이와 함께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함께 선정돼 국비 30억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도립대 2018년 미니채용박람회 성황

15개 기업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립대학교(총장 김대중)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2회에 걸쳐 대학본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극복을 위해 청년과 함께하는 미니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미니채용박람회는 구인기업에 기업 홍보와 직접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학(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로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한전 KDN과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강소기업 ㈜금호 HT, ㈜에스텍 시스템 등 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594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25명이 우선 채용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년구직자 채용면접은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면담하고, 기업 소개와 실현면접 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중 총장은 "이번 미니채용박람회는 대학과 지역 강소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속적으로 우수 기업 탐방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기부역량진단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대학평가 우수대학 8관왕을 차지하는 등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사제보 227-0000